

<b>보도 일시</b>	<b>2025. 3. 18.(화) 06:00</b>	<b>배포일</b>	2025. 3. 17.(월)
<b>담당 부서</b>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<b>담당자</b>	김소영 팀 장(043-880-5421) 안지수 과 장(043-880-5423)

## 봄철 캠핑,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하세요

- 어린이 안전사고가 61.2%, 보호자의 주의·관찰이 필요해 -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해 캠핑장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.

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\*되고 있다.

\* 연도별 위해접수건 : ('20년) 77건 → ('21년) 66건 → ('22년) 101건 → ('23년) 93건 → ('24년) 72건

※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특히 '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'로 인한 안전사고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춥고 건조한 봄철 캠핑 시 화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

### □ 안전사고에 따른 증상은 '화상'과 '열상(찢어짐)'이 절반 이상

안전사고 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, '미끄러짐·넘어짐'이 21.1%(86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고온물질' 16.9%(69건), '추락' 16.4%(67건), '가스누설 및 폭발' 11.3%(46건) 등의 순이었다.

#### 주요 위해사례

- ① (만 9세, 여) 캠핑장 텐트 줄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 발생
- ② (만 7세, 남) 캠핑장 난로에 데여 팔에 2도 화상 발생
- ③ (만 7세, 남)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져 쇠골 골절 발생
- ④ (만 11세, 여) 캠핑용 텐트 안에 참숯화로 피운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소실, 어지럼증, 구역감 발생

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, '화상'을 입은 사례가 30.0%(114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열상(찢어짐)'이 29.2%(111건)로 나타나 '화상'과 '열상(찢어짐)'이 절반 이상(59.2%, 225건)을 차지했다.

특히 '중독'은 2.1%(8건)로 비중은 낮으나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로, 사망, 의식소실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## □ 난방·가열을 위한 캠핑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

안전사고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, 난로, 화로대, 야외용 버너, 부탄가스,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(점화 등)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(32.0%, 131건) 발생했다. 이에 캠핑장에서 난방·가열용품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.

## □ 안전사고는 가족 단위로 놀러간 '어린이(만 13세 미만)'에게 가장 많이 발생

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(61.2%, 240건)이 '만 13세 미만의 어린이'에게 발생하였으며, 다음으로 '30~40대'가 22.4%(88건)를 차지하였다.

이는 '30~40대' 부모가 '만 13세 미만의 어린이'인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.

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▲어린이가 캠핑장에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도·관찰할 것, ▲텐트, 의자, 해먹 등을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고정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, ▲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성인 숯, 장작, 석유(등유), 가스로 난방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[www.ciss.go.kr](http://www.ciss.go.kr) 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- <붙임> 1. 캠핑장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 
2. 캠핑장 안전사고 주요 위해사례 및 주의사항

# 붙임 1

## 캠핑장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

- (연도별) 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'캠핑장'과 관련된 위해정보 접수 건은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됨.

[ 연도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캠핑장	77	66	101	93	72	409
증감률	-	△14.3	53.0	△7.9	△22.6	-

- (월별) 최근 5년간 접수 건수를 위해원인(대분류) 기준으로 월별 분석한 결과, 3월에 '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'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.

[ 위해원인(대분류)별 캠핑장 위해정보 월별 접수 현황\* ]

(단위 : 건)

구분	1	2	3	4	5	6	7	8	9	10	11	12	합계
물리적 충격	4	2	7	11	16	37	19	21	20	27	22	9	195
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	12	10	24	12	13	12	12	11	3	5	17	14	145
제품 관련	3	4	4	4	4	4	5	9	2	4	6	2	51
식품 및 이물질	2	-	2	1	1	1	1	1	1	1	1	1	13
기타	1	1	-	1	-	1	-	-	1	-	-	-	5
합계	22	17	37	29	34	55	37	42	27	37	46	26	409

- (위해원인별) '미끄러짐·넘어짐', '고온물질', '추락' 순으로 사고가 발생

- 캠핑장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7개의 위해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, '미끄러짐·넘어짐'이 21.1%(86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고온물질' 16.9%(69건), '추락' 16.4%(67건), '가스누설 및 폭발' 11.3%(46건) 등의 순이었음.

[ 상위 7개 위해원인(소분류)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\*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미끄러짐·넘어짐	18	8	22	24	14	86 (21.1)
고온물질	16	13	13	19	8	69 (16.9)
추락	12	14	17	14	10	67 (16.4)
가스누설 및 가스폭발	11	5	11	7	12	46 (11.3)
예리함·마감처리 불량	4	5	8	8	7	32 (7.9)
부딪힘	4	5	10	5	3	27 (6.6)
발화·불꽃	-	1	2	2	4	9 (2.2)
기타**	12	15	18	13	14	73 (17.6)
합계	77	66	101	92	72	408 (100.0)

\* 위해원인 부존재 1건 제외  
 \*\* 파열·파손·긁여짐, 기타 물리적 충격 등

□ (위해증상별) 안전사고에 따른 증상은 '화상'과 '열상(찢어짐)'이 절반 이상

○ 캠핑장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위해증상 상위 7개를 세부 분석한 결과, '화상'이 30.0%(114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열상(찢어짐)'이 29.2%(111건)로 나타나 '화상'과 '열상(찢어짐)'이 59.2%(225건)를 차지함.

- 특히 '중독' 2.1%(8건)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였음.

[ 상위 7개 위해증상(소분류)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\*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화상	22	20	24	28	20	114 (30.0)
열상(찢어짐)	19	23	28	23	18	111 (29.2)
골절	4	4	9	8	4	29 (7.6)
타박상	4	5	5	4	3	21 (5.5)
찰과상	1	1	8	3	2	15 (4.0)
뇌진탕	5	2	2	4	2	15 (4.0)
두통	4	-	5	1	-	10 (2.6)
기타**	6	5	13	18	15	57 (15.0)
중독	5	1	1	-	1	8 (2.1)
합계	70	61	95	89	65	380 (100.0)

\* 위해증상 부주재 및 불명 29건 제외

\*\* 안구손상, 절상(베임), 출혈, 탈구, 염좌 등

□ (위해품목별) 난방·가열을 위한 캠핑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

○ 캠핑장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위해품목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, '난방·가열용 캠핑용품'이 32.0%(131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시설 및 구조물' 15.9%(65건), '텐트 및 캠핑가구류' 15.4%(63건) 등의 순이었음.

[ 상위 7개 위해품목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난방·가열용 캠핑용품 <sup>1)</sup>	26	23	26	29	27	131 (32.0)
시설 및 구조물 <sup>2)</sup>	10	7	14	20	14	65 (15.9)
텐트 및 캠핑가구류 <sup>3)</sup>	14	16	16	8	9	63 (15.4)
레저, 스포츠 시설 및 기구 <sup>4)</sup>	5	9	12	12	5	43 (10.5)
킥보드·자전거 등	5	1	8	6	2	22 (5.4)
기타 물품 <sup>5)</sup>	0	3	6	5	4	18 (4.4)
식기류, 주방기기류 <sup>6)</sup>	4	1	7	2	1	15 (3.7)
기타 <sup>7)</sup>	13	6	12	11	10	52 (12.7)
합계	77	66	101	93	72	409 (100.0)

1) 난로, 화로대, 야외용 버너, 부탄가스, 토치, 목탄(숯) 등

2) 캠핑장 공간 및 부속 시설(화장실, 샤워실 등), 기타 구조물(데크, 사다리 등)

3) 텐트, 의자, 테이블, 해먹, 타프(그늘막) 등

4) 트램펄린, 놀이터(미끄럼틀, 그네), 수영장, 썰매, 루지 등

5) 선풍기, 농구공, 야구공 등

6) 주전자, 코펠, 냄비, 칼 등

7) 캠핑카(트레일러 등), 랜턴, 식재료, 불꽃놀이용 제품 등

□ (연령별) '어린이(만 13세 미만)' 안전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

- 연령이 확인된 392건을 분석한 결과, 61.2%(240건)의 안전사고가 '만 13세 미만의 어린이'에게 발생했으며, 다음으로 '30~40대'가 22.4%(88건)를 차지함.

[ 연령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	
<b>어린이 (만 13세 미만)</b>	<b>52</b>	<b>40</b>	<b>60</b>	<b>54</b>	<b>34</b>	<b>240</b>	<b>(61.2)</b>
10대 (만 13세 이상)	-	1	-	1	1	3	(0.8)
20대	1	4	4	8	8	25	(6.4)
<b>30대</b>	<b>10</b>	<b>8</b>	<b>14</b>	<b>7</b>	<b>5</b>	<b>44</b>	<b>(11.2)</b>
<b>40대</b>	<b>6</b>	<b>6</b>	<b>13</b>	<b>9</b>	<b>10</b>	<b>44</b>	<b>(11.2)</b>
50대	3	5	4	9	4	25	(6.4)
60대	1	1	2	2	1	7	(1.8)
70대	-	-	-	1	3	4	(1.0)
<b>합계</b>	<b>73</b>	<b>65</b>	<b>97</b>	<b>91</b>	<b>66</b>	<b>392</b>	<b>(100.0)</b>

□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사례

미끄러짐·넘어짐	- (만 9세, 여) 캠핑장 텐트 줄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 - (만 4세, 남) 캠핑장에서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 불에 열상
고온물질	- (만 7세, 남) 캠핑장 난로에 데여 팔에 2도 화상 - (만 8세, 남) 캠핑장 화로에 데여 얼굴과 양쪽 손에 2도 화상
추락	- (만 7세, 남)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져 쇠골 골절 - (만 48세, 여) 캠핑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
가스누설 및 폭발	- (만 11세, 여) 캠핑용 텐트 안에 참숯화로 피운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소실, 어지럼증, 구역감 - (만 31세, 남)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안면부 2도 화상

□ 캠핑장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

**[ 캠핑장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]**

1. 보호자는 캠핑장 내에서 어린이가 뛰거나 킥보드,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, 관찰할 것
2. 텐트, 의자, 해먹 등은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, 야간 이동 시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
3.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, 불을 피우고 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
4. 휴대용 가스버너에 너무 큰 냄비나 불판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열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과대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
5. 텐트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성인 숯, 장작, 석유(등유), 가스로 난방하지 말고 침낭, 핫팩 등을 활용할 것
  - 부득이한 경우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
  -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이나 장갑, 양말 위에 사용할 것